KOLPING 콜핑이면 충분하다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185호 1판 (음력 1월 15일)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우암학원 창학66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세계로 앞서가는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호남 굳히기…수도권·충청권 정조준

뉴스분석

정동영 합류한 국민의당

전남 박지원 합류 땐 광주 천정배·전북 정동영 ‘호남 벨트’ 완성 기대감

더민주 “과감한 개혁공천 호남서 정면승부 하겠다”

정동영 전 의원의 합류로 국민의당이 4월 총선을 5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의 호남 전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정동영, 천정배 등 호남의 대표적 정치인들이 가세한데다 DJ 가신그룹인 권노갑 전 고문을 비롯한 동교동계 인사들도 조만간 국민의당에 합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으로 정치적 족쇄를 풀어낸 박지원 의원도 국민의당에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이제 호남에서는 큰 흐름을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수도권과 충청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정동영 전 의원도 지난 20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호남 정치 부활과 함께 전북에서 국민의당이 석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국민의당에서는 정동영 전 의원의 합류 등을 계기로 호남에서의 ‘우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무소속으로 있는 박지원 의원만 합류한다면 전남(박지원)–광주(천정배)–전북(정동영)으로 호남 벨트가 완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보였다.

박 의원도 지난 20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친노 패권주의에 복무한 후보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일단은 국민의당에 유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호남 민심의 기대에 부응하는 후보만 내세운다면 압도적 승리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보다 신중하게 공천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호남에서의 분위기 상승은 지지부진하던 외부인사 영입과 세 결집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국민의당 바람이 다시 불지 않느냐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호남 벨트에 이어 정운찬 전 총리의 영입이 성사되면 호남–충정–수도권으로 국민의당 바람이 북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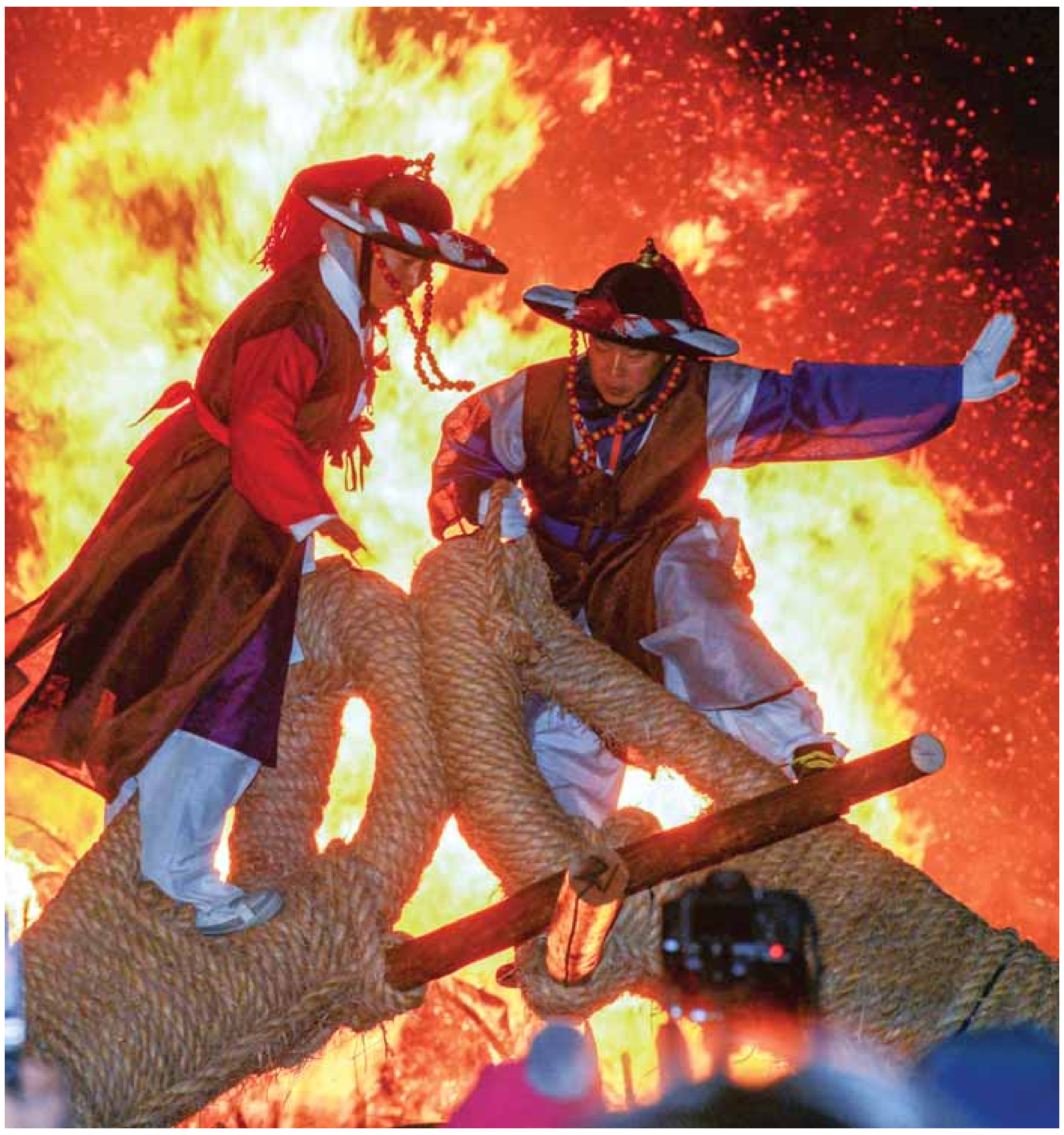
하지만, 수도권에서의 고전은 국민의당이 풀어야할 숙제다. 호남을 제외하고 정당 지지율에서 더민주에 뒤처지고 있으며 뚜렷한 반전 카드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더민주에서는 ‘그때 그 사람들’의 국민의당 합류는 전반적인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커지고 있는 국면에서 일부 과거 인사들의 영입은 별다른 파급력이 없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오히려 새로운 인물을 투입하는 과감한 개혁 공천으로 호남에서 정면 승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의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주를 첫 공천심사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다.

다만, 호남을 상징할만한 주자가 없어 바람이 좀처럼 불지 않는데다 전략공천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더민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전북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영입함에 따라 호남 전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엔 호남 민심에 맞는 공천을 어느 당에서 잘 하느냐가 호남 전선에서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늘 정월 대보름…광주 칠석 고싸움 놀이 정월 대보름을 앞둔 지난 20일 광주 남구 칠석동 고싸움 테마파크에서 대형 달집을 태우면서 광주 칠석 고싸움 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33호인 고싸움 놀이는 남자를 상징하는 동부와 여자를 상징하는 서부 두 패로 싸움을 벌여 여자를 상징하는 서부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총선 ‘출전 선수’ 명단 윤곽

국민의당 공천 신청 마감 … 광주 3.5대 1·전남 3.27대 1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의 공천 신청이 마감되면서 총선 ‘출전 선수’ 명단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고 추가 공천 신청이 마무리되면 당내 경선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선거구별 대진표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지난 3～19일 접수한 4·13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의 1차 집계 결과, 330명이 신청해 평균 1.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불출마 또는 비례대표 출마설이 제기됐던 안철수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병 출마를 신청했다. 박선숙 사무총장, 그리고 경기 고양 덕양을 출마를 준비하던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지역구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이날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공천일정과 공천 시행세칙 등을 집중 논의, 이르면 오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당이 광주·전남지역 공천 신청 결과, 광주 8개 선거구에 28명이 신청해 3.38대 1, 전남 11개 선거구에 36명이 신청해 3.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전체로는 3.36대 1의 경쟁률로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간에 보이지 않은 혈투가 시작됐다.

더욱이 이 같은 경쟁률은 광주에서 1.63대 1, 전남에서 2.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더민주보다 높은 것이어서 치열한 예선전을 예고했다.

이에 더민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실사 등 공천심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22일부터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시작하기로 공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후보자 면접을 실시중이어서 공천 절차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휴대전화 안심번호 제도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경선 일정 확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자동차 100만대 기지 예타 보완 신청

수정계획서 산업부에 제출

올해 광주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광주시는 최근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수정계획서를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말 기획재정부 예타 점검회의에서 국가 노동정책과 관련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사업에 반영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구성할 것을 요청받았다.

시는 수정계획서에서 전국 단위 공모 연구개발사업 보다 지역 부품기업에 직접적인 기술개발 지원이 가능한 기술지원센터와 공용장비 구축 위주로 사업을 재배치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정 연대를 통해 적정임금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기업 투자를 이끌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로 반영됐다. 국가 노동정책과 연계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해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수정계획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의 검토와 기재부 점검회의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중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예타 통과 전 국비 30억원, 시비 18억원 등 올해 사업비가 반영된 만큼 예타 통과 직후 산단, 인프라 설계에 들어가 물리적·공간적 기반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제조업 전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에 산·학·민·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최권일기자 cki@

금남로 조각상 예술의 거리로 ▶7면
문화원류-바이칼 선녀와 나무꾼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한다

차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된 감동은 차에 오르는 순간과 드라이빙의 순간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조차 럭셔리하게 바뀌게 될 렉서스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할 단 하나의 하이브리드입니다

LEXUS AMAZING IN MOTION